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 2 보)
—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

김 주 영 · 양 숙 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Deconstruction’ From The Inside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Costume(Part II)
— From 1980's to 1990's —

Joo-Young Kim · Sook-Hi Y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1997. 4. 25 접수)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Derrida's 'Deconstruction' theory on the contemporary costume. Derrida's theory of 'Deconstruction' took into the 'decentring' concept which deconstructed the subjects i.e., Occidentalism, Elitecentrism, logocentrism, mancentrism etc.; it deconstructed the dichotomy that had been expressed in the traditional occidental metaphysics, by raising the isolated ones such as the Orient, sub-culture, irrationality, madness, woman etc.

Summarizing the conclusion of this thesis as follows,

1. The impact of 'Deconstruction' from the inside is to be seen in the principles of intertextuality of the costume, therefore it has shown the bisexual costume by interacting gender, and the costume by mixing time, place and occasion.
2. 「Dis·de」 phenomena which shows the concept of escape from the center were presented as decentring, dislocation, decomposition, disorder.
3. Undecidability principle resulted in the undecidable presentation in the wearing styles such as wearing, unwearing, layering.

Contemporary costume by the 'Deconstruction' from the inside regards costume as a dynamic text, which has attempted the interaction with the other genres. It deconstructed the teleology of the costume function, and it accepts all the various aesthetic principles.

I. 서 론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대

학에서 열렸던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 선언은 모더니즘의 갑수성과는 전혀 다른 탈모더니즘으로서의 비주류와 타자에 대한 관심을 주장하였다. 내체로부터 하이데커를 거쳐 자크

데리다에 이르는 형이상학 역전의 역사 중에서, 자코 데리다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 지성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해체주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 세기 말적 포스트모던 양상에 맞물려, 철학, 문학, 건축, 미술, 실내 디자인, 공업 디자인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있으며 복식에서도 그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복식에서 해체주의는 “해체”라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복식 혹은 물리적 형태의 외피를 그 대상으로 하는 외부로부터의 해체, 그리고 데리다의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전까지 인식되지 않았던 본원적인 타락과 오염을 폭로함으로써 그것을 뒤집고 복식에 내재하는 본원적 딜레마를 규명하고자 하는 내부로부터의 해체로 분류할 수 있다.

본 고는 현대 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 1 보)의 후속 연구로서,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에 근거해 복식에 나타난 해체 전략을 살펴보고, 1993년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Infra Apparel*” 전시회 카탈로그 텍스트의 저자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과 헤롤드 코다(Harold Koda)의 해체주의 복식 이론을 근거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현대 복식에 형성되어온 해체주의를 내부로부터의 해체현상을 중심으로 철학, 미학, 예술, 문예비평지 등의 각종 문헌과 패션잡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해체주의

1. 해체주의의 개념 및 특성

해체주의의 성립과정은 구조주의(Structualism)의 전개과정에서 구조주의에 내재해 있던 자기모순적이며 자기부정적인 포스트 구조주의(Post Structuralism, 후기 구조주의, 탈구조주의)의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포스트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해체주의는 그 특성을 이어받았다. ‘예술 텍스트의 구조적 조직을 재배하는 법칙’을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구조주의는 구조의 체계적 특성, 변형 과정의 성격, 일반 법칙 추구성 등 과학성을 주장하므로 특징상 닫혀져 있으며, 이원적 반대의 개념을 설정한다.

이에 반해, 포스트구조주의는 첫째, 절대적 의미의 안정된 근원을 교란시키고 해석의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모든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차이를 인식하고 불확실성과 불안, 지배 문화로부터 소외된 타자를 인정하고,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

데리다는 그의 저서 〈입장들〉,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¹⁾에서, “해체의 시도는 반드시 내부로부터 작용한다. 그것은 역전을 위한 전술과 힘을 오래전 구조로부터 빌릴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즉 그 요소나 원자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로 빌려온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의 회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함으로써 해체를 자신의 철학적 방법의 주축으로 삼는다.

언어체계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자기동일적 의미를 갖게 하려는 것이 해체주의의 비판하려는 바이기 때문에, ‘해체’란 단어의 개념을 찾는 것 자체가 가장 반해체적인 행위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학자의 해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해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빈센트 다이치(V. Daich)에 의하면 텍스트의 이론 및 분석의 존재방식으로서의 해체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잊고, 기존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앞의 정의에 추가하여 크리스토퍼 노리스(Ch. Norris)는 정해진 우열 순위뿐만 아니라 그 순위를 가능케 하고 있는 개념체계의 해체까지도 노리고 있다고 하였다. 앙 제퍼슨(A. Jefferson)은 텍스트에 숨어있는 전제들을 억지로 끌어내고 거기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로고스중심주의적 모순을 취급하여 그것을 역전, 의문을 제기하며 그것을 ‘중성화’ 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로고스 중심주의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내부로부터 모순에 대항할 뿐이다라고 하였다²⁾. 따라서 ‘해체’란 기존의 구조에 대해 다른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구조를 우회함으로써 그것을 지지하고 있던 제반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즉 허공에 배단 상태로 만들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해체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전의 형이상학에 대한 해체이다. 현전의 형이상학이란 ‘현재 바로 앞에 존재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적 의미에 가장 근접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표상한다는 것이다³⁾. 데리다는 언어와 기호의 재현에 대한 믿음을 전복시킴으로써 본질과 근원을 가장 근접하게 표상하는 현전도 그것을 매개하는 언어의 불안정성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하며 그 존재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둘째,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e)⁴⁾에 대한 해체이다. 음성을 문자보다 우위에 위치시키려는 로고스 중심주의적 형이상학은 근본개념들을 이항대립으로 형성하고 선형하는 것이 우위에 속할 뿐 아니라 로고스적

이며 보다 고차원적인 현전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데리다는 순전한 음성적 문자는 존재치 않는다는 사실을 논증함으로써 로고스중심주의=음성중심주의=현전의 형이상학이라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해체시키려 한다⁵⁾.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 이분법적 대립을 없애고 해체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텍스트의 조직 속에 쌓여서 가라앉아 있는 의미의 잊혀진 침전물을 끄집어내는 다항대립의 교차댓구법적—이것이고 저것이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님으로의 지향—해체를 지향한다⁶⁾. 이로써 로고스중심주의는 붕괴되고 이성의 도구인 언어는 유희의 대상이 된다⁷⁾.

셋째, 실존주의적 휴머니즘과 맑스주의적 휴머니즘에 대한 반동이다. 데리다는 ‘인간’이라는 기호는 마치 기원도 없고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한계도 없는 것처럼 기술했으나 사실 인간주의적 세계관은 오늘날 종말에 다다랐고, 서구적 인간이 이어받아온 기표와 기의의 체계 역시 해체된다는 것⁸⁾으로서 극도의 허무주의가 깔려있다.

넷째, 닫힌 체계 내에서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열린사회, 열린사고를 추구한다. 즉 닫힌체계를 거부하고 불안정과 무질서,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이다. 해체주의는 철학의 제1차적 목적이 근본 토대를 제공한다든가 확실성을 보증하는데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지식을 이해상황(context of understanding)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급진적 해석학으로서의 다의성을 꾀한다⁹⁾.

2. 해체전략

구조주의의 기본명제, 나아가 플라톤 이후 서구 형이상학 전반에 대해 도전하는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언어와 기호의 재현성과 중심적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의 대상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닫힌 체계를 거부하고 열린 사고를 추구하며, 그 방법론으로서 탈현상, 차연, 산포,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의 원리 등의 기본 개념을 해체전략으로 한다. 데리다의 해체는 전통적 인식론의 메타철학적 자기 이해에 대한 해석학적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비판을 극한까지 끌고 가서 전통적 해석학에 대항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방법론이 ‘해체’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J. Derrida)에 따르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여 투소와 하이데커를 거쳐 레비

스트로스에 이르는 서구 철학, 또는 서구 문학은, 한결같이 ‘만물의 창조자로서의 신’을 비롯하여 ‘플라톤적 형식’과 같은 통일성의 원리로 작용하는 어느 한 중심적 체계에 기초해 왔다.

“인문과학의 연출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에서, 데리다는 이 모든 사고 체계에 ‘형이상학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레비스트로스의 구조개념뿐 아니라 서구 형이상학의 ‘중심’을 비판한다. ‘중심은 전체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전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는 어떤가 다른 곳에 그 중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중심은 중심이 아니다. 중심있는 구조란 모순으로만 통일성을 지닌다¹⁰⁾.’ 결국 중심으로서의 구조는 탈중심화되고 해체된다.

기호의 재현가능성을 거부하는 해체이론은 재현이 의미의 중심이 현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재현 그 자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형이상학과 문화 등의 의미체계에서 탈구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즉 ‘dis, de의 탈현상’은 텍스트의 텍스트 내에서 재편성 되어, 지속성, 기표와 기의간의 간극, 의미소멸, 감상자의 보편적 경험소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의 형이상학과 인간이라는 주체에 의해 재현되지 않는 형태들에 의해 다의적으로 조직되어 읽혀진다¹¹⁾.

같은 맥락에서, 하나의 텍스트(text)는 ‘초월적 지시 대상’이나 절대적 진리는 하나의 환상, 자취, 대체물일 뿐이며, “어떤 기표와 그 기의가 연관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표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적 유보가 필요하다. 즉 기표는 기표이기 위해 한 순간 기의와의 연관을 포기, 유보해야 한다.” 데리다 자신의 신조어 ‘차연(différance, 차이+연기하다)’이란 언어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기표(signifiant, 표시하는 것)과 기의(signifie, 표시되는 것) 사이의 불안정성과 같다¹²⁾. 오전대, 데리다가 <여백>에서 시간의 공간화, 공간의 시간화라고 했듯이, 차연은 ‘명명할 수 없는 이름’과 같은 신비성보다 오히려 원문자의 뜻으로 보아야 하며, 데리다는 ‘이 명명불가는 명명의 효과를 만들고, 명사라고 하는 원자적이고 상대적으로 단위적인 구조를 만드는 놀이이다.’라고 하였다¹³⁾. 따라서 기호는 그 자체 속에 자신의 ‘의미를 연기’하는 ‘차연의 유희’에 불과할 뿐이다.

바르트(R. Barthes)의 텍스트론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작품을 하나의 완결된 산물로 간주해 왔으나, 해체주의에서는 이 산물에서 끊임없는 짜임을 통해 텍-

스트로 만들어가는 생성적인 개념 즉, 기표 또는 코드들의 무한한 짜임, 또는 그 짜임새 안에서 주체가 위치 하여 해체되는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즉,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혼존 불가능하며, 텍스트는 조합과 근접, 전형, 중첩 등을 통한 다원적 상황이 되고, 이를 메리다는 상호 언급, 병행 인용으로 설명한다¹⁴⁾. 따라서 텍스트의 자율성이 거부되고 혼술행위 역시 ‘중첩’, ‘반복’되어, 모든 텍스트는 기호와 마찬가지로 인용일 뿐이다.

텍스트 사이의 그리고 텍스트 내부의 각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차연’으로 존재하는 데리다의 텍스트 즉, 해체된 텍스트는 그 자체의 불확정성과 비확정성으로 인해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의 성격을 띤다. 데리다는 ‘결정 불가능성’은 철학적 이항대립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그 대립에 살면서 거리에 저항하고 그 대립을 조작, 파괴시킨다¹⁵⁾.’라고 함으로써 진리란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가치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해석의 해석, 해석의 무한연계

성은 결국 총체적인 전체성의 울타리 안에 모든 것을 가둘 수 없음을 뜻한다. 의미의 무한한 다의성, 텍스트를 초월하는 잠재적인 것의 재표상화인 ‘산포(dissémination)’를 향하여 열려진다. 산포는 비록 ‘무수한 의미 효과’를 생성시키지만, 그것은 결코 완전한 근원으로서의 현재나 종말론이 아닌 환원 불가능한 생성적 ‘다양성’에 집중한다.

요컨대, 해체주의는 전통이나 음성중심주의 밖에서의 파괴(destruct)가 아닌, 그 내부에서 구축(construct)된 것을 그 근본부터 해체(deconstruct) 하는 것이다. 절대적 권위나 체계성이 모두 해체될 때 국도의 상대성만 남게 되어, 회의주의적, 심지어는 허무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지만, 모더니즘의 속물적 위선이 아닌 철저한 다원주의를 토대로 한 니체의 긍정적 허무주의를 지향한다.

III. 현대 복식에 나타난 내부로부터의 해체 현상

본 절에서는 해체주의의 기본 개념 즉, 상호텍스트성, dis·de의 탈현상, 결정불가능성이 현대 복식에 어

<표 1> 해체전략의 개념 및 특성

해체 전략	개념	특성
텍스트 (text)	최종적 궁극적 의미결정은 불가능 ‘비결정성’과 ‘반전리’의 논리	규약, 전문기법, 문화, 시대, 문학구조, 디자인의 형태, 시각적 패턴 등 모든 철학적 논리의 중심주의 예를 들면 서양중심주의, 말 중심주의의 소리중심주의, 남자중심주의, 물질주의 등을 거부
차연 (différance)	차이(공간적)+연기(시간적) 시간의 공간화, 공간의 시간화 흔적의 사유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 반개념으로서 양자택일을 거부 현존/부재의 대립을 초월한 모든 의미와 나타남의 가능 근거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
산포 (dissémination)	다의성 텍스트를 초월하는 잠재적인 것의 再表像	텍스트의 의미와 무의미, 의미의 단수와 복수의 인식론적 테두리 벗어나 의미 자체를 흩어버림으로 인한 자기동일성의 해체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상호언급, 병행인용	인용과 반복을 통한 텍스트의 유희 유희가 갖는 산종적 성격
dis·de의 탈현상	기호의 재현불가능에 의한 기표와 기 의의 간극 목적론의 해체	탈구성(decomposition), 탈중심(decentring), 무질서(disorder), 불연속, 전위, 분리, 분열

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다.

1.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텍스트(text)란 용어는 주로 언어학자, 문학 비평가, 기호학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연구대상인 주로 문자 언어로 쓰여진 글을 부르는데 사용되어 왔다. 복식을 하나의 '텍스트'로 간주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언어학으로서의 기호학(semiology)의 연구 대상으로 패션이라는 현상을 포함시킨다는 뜻이 된다¹⁸⁾. 즉, 복식에서 텍스트란 용어의 사용은 하나의 복식을 현실과 역사로부터 분리된 달린 체계 혹은, 외부 세계와 차단된 '순수한' 기호의 집합체로 보는 대신, 텍스트는 자율적으로 존재 불가능하며, 텍스트 자체를 상호 '인용'하거나, 특정한 표현 방식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

즉, 패션 텍스트 사이의 상호 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강조하는 경향은 하나의 텍스트가 경계를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텍스트와 상호 인용을 껴하듯이, 패션은 다른 텍스트 즉, 상대의 성, 지위, 나이, 예술 나아가서는 T.P.O. 모두를 인용한다. 따라서, 해석자는 하나의 복식을 독립된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패션, 또는 대중 문화의 다른 부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텍스트로서, '인용', '창조적 표절'과 함께, 주체가 없는 탈중심의 해체 원리를 이해하고, 나아가 패션과 비패션의 경계선에서 병행 인용으로 전환되어, 차연의 유희로서 다해석 가능하게 된다.

이 시대는 모더니즘의 진보에 대한 과신으로 급격한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반대의 요소를 조합하여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는 즉, 상호 텍스트를 인용하여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 역설적인 이론 속에 하나의 근거가 발견되는 것이다. 웨스트우드는 "나는 비정통적인 편지를 만들기 위해 전통적인 것을 이용한다. 패션 디자인은 거의 수학과 같아서, 시대에 적합한 등식을 성립시키기 위해 서로로부터 더하고 빼야 한다." 고 설명함으로써¹⁹⁾ 상호텍스트성의 필요성을 예시하고 있다.

1995, 96년 추동에 발표되었던 프리미에로 비종의 오디오 비주얼에서 보여진 테마이기도 했던 듀얼리즘(dualism)¹⁸⁾은 90년대 카오스현상, 가치 경계의 혼몰, micro와 macro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뉴소사이어티에서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었던 서로 다른 모습, 각각으로 인정되었던 모순된 양면성을 하나로서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가치, 사고, 문화의 무경계성은 시공간을 초월한 다중성으로 전이되며, 대립된 양면성을 만족시켜 경계가 없어진 시점에서 혹백 논리나 이분법은 더 이상 존재치 않고 해체되어, 상호텍스트성을 이루고, 나아가 불확정성 원리로 통하게 된다.

데리다의 상호텍스트성은 양면성의 공존에 근거한 듀얼리즘(dualism)과 일맥상통하면서, 복식에서 남성 대여성의 성역할 고정관, 아이템, 예술, T.P.O에 적합한 차장법 등을 해체시키고, 상호 텍스트를 병행 인용함으로써 기존 사회 규범으로서의 이분법적 표현 방법을 무너뜨리고, 이성적 합리적인 면보다는 감각적 자극과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타자를 수용하는 열린 사고를 제시한다.

1) 성(gender)의 상호텍스트성

서구 패션의 특징적 변천은 주체/객체, 남성/여성의 관념적 대응 관계에서 유래하여, 여성은 열망의 대상과 기쁨의 저정체로 보려는 남성 기준의 시각에 의해 여성은 표현의 수동적 매개물로, 눈요기의 대상으로서 억압되어 왔으나, 1980년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배경 하에서, 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해체되고, 서로 반대되는 성 텍스트를 모방하는 양성성(androgyyny)의 복식은 내부로부터의 해체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의 대표적 예이다.

1960, 70년대 페미니즘은 성의 관계가 힘의 관계임을 폭로하거나, '남녀 평등의 페미니즘'을 주장함으로써, 눈 앞의 권익만을 추구했을 뿐 성 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반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포스트 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한 1980년대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적 타자의 응호자로 각광받은 리오타르(J. F. Lyotard), 남녀의 이분법을 무효화시킨 데리다(J. Derrida), 해부학적 결정론을 초월한 라캉(J. Lacan), 권력-지식-좌학의 체계를 폭로함으로써 성별의 역사적 구축을 주장한 푸코(M. Foucault)와 같은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모순과 타자로서의 여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연다.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성차를 무효화하고자, 대립함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연적 성(sex)으로부터 문화적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성이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여성만의 해방 운동으로부터 남

녀 공동의 인간해방, 주체성의 해방 운동으로 전환해 나간다¹⁹⁾.

1920년대에 빠루, 샤넬, 몰리뇌, 비요네 등에 의해 유니섹스 모드로 등장한 ‘갸르손느 룩(garçonne look)’은 여성=자연=嵬체, 남성=문화=주체라는 여성의 종속 상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오랜 문화적 이분법에서 탈피하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 노동자들의 일상복으로 도입된 작업복과 함께 등장하게 된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또한 여성들에게 강요된 ‘속박’을 의미하는 ‘여성스러운 패션’으로부터 탈출하여, 남성적 이미지를 차용한 여성 자신의 강화와 남성 다음의 표면적인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양성화 모드의 탄생을 유도했다²⁰⁾.

20세기 전반의 양성화된 복식이 여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최근의 양성화된 복식은 남성성의 규범에 대한 도전 즉, 남성의 복장도착(cross-dressing)이다. 19세기 중반 댄디(dandy)와 양대 세계대전 후 형성된 많은 청소년 하위문화 집단들 즉, 테디보이(teddy boy), 모즈(mods), 히피(hippy), 펑크(punk) 등에 이르러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 방법으로 가시화된 남성의 성 관념에 대한 부정은²¹⁾, 70년대 중반 이후 뉴 웨이브 패션이 주류를 이루면서 글리터 락커(glitter rocker)들의 남녀의 복식을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에 따라 크로스 오버시킨 앤드로지너스 룩(androgenous look)으로 이어진다.

핀겔스테인(Finkelstein)은 남성의 시시하고, 캐주얼한 룩은 남성의 변화하는 지위를 반영할 수도 있다고 논의해 왔듯이, 21세기를 바라보는 현대의 성개념도 바뀌어,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아닌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로서 중성적인 성향을 선호하며, 유니섹스나 앤드로지너스와는 미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 두 개념을 포함한 더 큰 개념 즉 듀얼리즘(dualism)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성 혼합의 또 다른 길을 보여준 일본 디자이너들 레이 가와쿠보(R. Kawakubo)와 요지 야마모토(Y. Yamamoto)는 종종 기하학적이면서 비대칭적 형태인 의복층 아래에 인체형을 완전히 위장함으로써 여성답거나 강식적인 전통 서구 여성복에 대한 관념을 거부했으며, 그들의 언글래머러스(unglamorous) 한 기능적인 본성을 서구 사회에 급진적으로 나타냈다²²⁾.

가와쿠보는 여성의 견날픈 부분과 남성의 거친 부분

을 잘라내고 남녀를 같은 위치에 세워 인간성=휴머니티 자체라고 주장하고 국경, 종교라는 경계의 파괴에 있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와 같은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남자도 여자도 인간답게”라는 더 큰 명제를 제시한다. 95년 춘하 콜렉션에서 꼼모 데 갸르송은 아주 남성적인 라인의 디테일이 첨가된 재킷과 바지에 여성스러운 포릴파 레이스가 있는 블라우스를 함께 매치시키거나, 시스루의 블라우스와 남성 재킷을 입고 아래에 스커트와 바지를 착용시킴으로써, 여성미와 남성미를 함께 만족시켜주는 ‘제 3의 성’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

끌띠에(J.P. Gaultier)는 남성복에 스커트를 등장시킴으로써, 의복이 성을 구별해주는 도구로 이용됨을 거부하고, 의복의 사회적 상징성과 성(gender) 정체성의 정의로부터 해체하고자 한다. 그의 1984년 가을 남성 콜렉션에서 사롱(salong: 허리에 감는 천)과 팬츠 스커츠(pants-skirts: 다리가 드러나면서 앞부분에 스커트 조각이 달린 바지)는 1990년대 초기에 ‘스퀴트’(skuit: 수트 직물로 만든 장딴지 길이의 스커트)로 부활되었는데, 이것은 1960년대 남녀 의복의 똑같은 헤어 스타일, 의복과 같은 유니섹스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의복을 공유하되 다른 식으로 입음으로써²³⁾, 남성은 남성스럽게 여성은 여성스럽게 남아있는 제 3의 성을 추구한다.



[그림 1] Comme des Garçons의 작품, 95 S/S, (Fashion News, p. 13)

그는 1986년 기술적으로 분해된 마네킨을 가지고 고전적 미를 종합하였는데, 남성 마네킨에 여성의 원피스를 입혔으로써, 고전적 이상의 양성성(androgyyny)을 강조한다²⁴⁾[그림 2].

웨스트우드(V. Westwood)의 1991, 92년 추동 컬렉션에 발표된 남성의 성기와 결합한 여성용 팬티[그림 3]를 보면 은폐되어야 하는 성기의 노출과 동시에 남성복이 아닌 여성복에 그것이 표현됨으로써 오늘날 성의 혼재를 풍자한다.



[그림 2] Jean Paul Gaultier의 작품, 92 S/S, (Men's Collections, p. 93)



[그림 3] Vivienne Westwood의 작품, 91 S/S, (Collezioni Donna, p. 350)

2) T.P.O.의 상호텍스트성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에 상관없이 상대 텍스트의 T(time), P(place), O (occasion)를 인용하는 믹싱 모드(mixing mode)라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해체주의 복식은 이질성, 부적합성, 의외성을 추구한 결과, 이분법적인 과거와 현재,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 동양과 서양, 디자이너 패션과 스트리트 패션 모두를 해체하고, 쇼트와 롱, 포멀과 스포츠, 하드와 소프트, 또는 목적이 다른 아이템 등 대조되는 것들을 집대성하여 부조화, 비상식, 비범함, 둘의 파괴, 불협화음을 발생시킨다.

클리에(J.P. Gaultier)는, 어떤 하나의 스타일에 얹매이기 보다는 인종, 문화, 종교 등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이 모두를 초월한 자유스러움을 복식을 통해 표현하고자²⁵⁾ 패션에 음악, 예술, 문화 등 시대성의 텍스트를 가미시켜 의복에서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리고 의복이 인간에 의해 창조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는 인간 중심관에서 벗어나 주변적인 것을 수용하고, 의복도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탈중심화(decentring)된 개념, 그리고 전통적 의복의 '세트(set)' 개념을 파괴하고 다다이즘적 조합 방식을 제시한다. 따라서 T.P.O. 등 여러 장르를 혼합하면 질서가 깨져 혼란이 오지만 새로운 질서가 탄생됨으로써 해체된 텍스트는 각태일 효과에 의해 재구성(reconstruction) 되어 새로운 질서가 발생하는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해체주의 원리를 제시한다.

전통적 테일러링과 유머, 거리의 불경한 해우이를 결합시키는 1960년대 거리 패션의 길을 열면서, 그는 밀리터리 재킷에서 턱시도, 수녀복까지 전통 유니폼을 일반 복식으로 전환시켜 왔으며, 페티쉬스트, 러시안 망명자, 몽고 부랑자와 인도 귀족, 최근에는 '종교'라는 테마 아래 카톨릭과 이슬람교가 혼재된 형태를 시도하여, 고전적 남성복 테일러링을 현대화 시킴으로써, 시간성·공간성·목적성 모두를 해체한다.

[그림 4]는 소매를 견은 포멀한 반팔 재킷과 스코틀랜드풍의 진스커트, 인도풍 코걸이의 서양 남성을 통해 시간·공간·목적 등 정반대의 텍스트를 인용하는 상호텍스트성의 대표적인 예를 나타낸다. 공군 조종사의 점퍼를 변형시켜 범버 재킷(bumber jacket)을 만들거나, 아무도 신경쓰지 않으며 무관심하였던 유니폼이나

운동복 등의 장르를 혼합하여 새로운 패션 장르로 만들었으며, 또한 전통적인 바ロック 스타일의 레플 블라우스와 현대의 겹정색 진, 미래지향적 모자와 장갑 등으로 모든 시간성을 해체하고 1992년 춘하 콜렉션에는 반바지와 롱스커트[그림 5]의 상호텍스트를 인용해 소트와 풍, 포멀과 캐주얼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아이템의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다.

바ロック적 사고, 애매한 것, 다의적인 것, 공상, 전혀 반대의 것들을 조합해 차테일 효과를 발생시켜 새로운



[그림 4] Jean Paul Gaultier의 작품, 94 S/S,
(Uomo Collezioni, p. 231)



[그림 5] Jean Paul Gaultier의 작품, 92 S/S,
(Collections, p. 25)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상호텍스트성의 선두주자, 베르사체(Versace)는 의복의 형태, 소재의 조합, 디자인, 색상, 레벨에까지 정반대의 조합을 실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년전 그가 스커트와 팬츠의 믹스(소위 댄서라고 하는 것), 재킷과 코트,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소위 브랜디라고 하는 것), 신 소재와 기존 소재, 스포티한 의복으로 사용되는 가죽과 고가로 가공된 이브닝 드레스용 소재를 조합하여, 성, 아이템, T.P.O.의 이분법적 개념을 해체시키고 상호텍스트성을 제시한다.

1991년 춘하 콜렉션에서 크리놀린 스커트들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독창성이 없다고 느낀 베르사체는 소시적 몇 분 전에 불을 펑크빛으로 연출한 모델이 크리놀린으로 크게 부풀린 18세기의 귀족의 상징인 실크 스커트[그림 6]와 함께 노동자들의 작업복이 기원인 데님셔츠를 입고 등장하게 하여 신분과 이브닝 드레스에 대한 목적성을 해체시키고 포멀과 캐주얼의 상호텍스트성을 제시한다.



[그림 6] Gianni Versace의 작품, (Vogue, 92/3, p. 286)

베르사체는 여성 남성용에 상관없이 셔츠나 재킷, 스커트 등에 가면과 신화에 나오는 얼굴(메두사는 베르사체의 트레이드 마크), 브론조상, 고대 그리스 철학에 이름이 남아있는 비유적인 구도 등 그리스와 로마 등 고대 미술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도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 그리스의 예술가와 아방가르드스트가 같

은 시기에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취급되어 해체에 의한 시간적 재구성이 일어난다. 합해진 구성 요소는 더 세련된 단계에서 역설이 일어나게 되고, 부분적 구성보다 전체적 구성에서 특히 카테일 효과와 시간의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한다. 라거펠드(K. Lagerfeld) 역시 샤넬 쇼의 피날레에 파스텔의 툴(tulle) 스커트에 남자들의 흰 러닝 셔츠를 입고, '너 자신답게 입어라(Suit yourself)'라고 주장한다.

마사키 마쓰시마(Masaki Matsushima)의 95년 춘하 작품 역시 여성용 구두와 겸복은 남자 모델은 시스루의 티셔츠 반쪽과 테일러드 재킷의 반쪽이 단추를 채우면서, 속옷과 겉옷, 포멀과 캐주얼, 여름과 겨울, 남성과 여성 텍스트를 인용하고, 이분법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음을 제시한다.

베르사체는 '현대 여성들은 극단적인 반대 급부를 미스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며, 라거펠드도 '더 이상 룰은 없다. 당신이 원하는데로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90년대이다.'라고 동조함으로써, 'Anarchy(무정부)', 'Romantic Rock(동요)', 'Chic and Shock'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 패션의 상호텍스트성을 제시한다.

2. Dis, De의 탈현상

재현은 의미의 중심이 혼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 이론은 기호의 재현 가능성을 거부하고 기표와 기의간의 간극, 의미 소멸, 감상자의 보편적 경험 소실을 강조하므로, 형이상학과 인간이라는 주체에 의해 재현되지 않는 형태들은 다의적으로 조작되어 읽혀진다²⁶⁾.

데리다가 "무엇이 해체적인 건축적 사고 철학과 연결을 강화시켰는지 밝혀내려는 시도일 경우에만 해체적이다."라고 말했듯이, 같은 공간적 조형 예술인 복식 역시 철학이나 복식의 전통적이고 중성화된 개념을 거부할 때, 내부로부터 해체라고 할 수 있다.

내부로부터의 해체는 목적론의 해체이어야 하며, 관례적 암호들은 dis, de의 탈현상을 통해 의미적 정의를 끊임없이 자연시킴으로써, 우연적인 것과 겹치고 인식 범위는 확장되어, 무정부주의적 자율성을 갖게 된다.

복식에서 이와 같은 dis, de의 탈현상은 부정성의 디자인 원리, 예를 들면 탈구성(discomposition), 탈중심(decentring), 무질서(disorder)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탈구성(discomposition)이란 용어는, 텍스트를 개념적으로 분해·분석하고 어떤 구조적 범주 안에 위치시키는 것으로서,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의 상호 관계가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하는 즉, 전통적 디자인 과정의 역을 취하고 있다²⁷⁾.

근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비례 체계의 수단인 평면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을 바탕으로한 수직과 수평의 기본적인 위계 형성은 그 후, 기하학의 결정론을 배제하고자 좀더 다원적인 기하학적 적용을 하였다. 해체주의 디자인에 있어 기하학적 형태의 역설적 구성은 기하학과 시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의미의 폭이 확대되었고, 탈중심,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 무질서 등의 구성을 통해 특정한 위계 질서를 갖지 않는 위계의 불확정성을 갖는다²⁸⁾.

즉, 오늘날은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의복, 봉제를 극소화한 의복, 심지나 안감, 다리미 처리도 없이 만드는 탈구성적 의복 다시 말하면, 형태 자체도 의복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형태를 벗어난 것이 아름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미(美)의 반작용인 추(醜)의 무형식성²⁹⁾을 대두시키며, 전통적 미개념을 해체하고 불확정적 위계 구조 하에 미의 폭이 확대된 내부로부터의 해체를 제시한다.

1980년대 패션³⁰⁾은 크게 두가지 스타일 즉, 구조적인(constructive) 스타일과 비구조적인(unconstructive) 스타일로 특징지어진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서구 패션의 전통적인 구조적(constructive) 스타일은 이브 생로랑, 지방시, 소니아 리키엘, 크리스챤 디올, 샤넬, 발렌티노 등의 오뜨꾸뛰르의 디자이너들로 대표되며, 80년대 초 테일러드 룩, 매니쉬 룩, 바로크 룩에 이어 80년대 중반 바디 컨셔스의 구축적 스타일로서 나타났다. 반면, 비구조적 스타일은 새로운 의식 세대의 출현과 자유로움의 정신을 표현한 평크, 포스트 모더니즘, 네오 모더니즘, 앤드로지너스 등 뉴웨이브 패션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난 '재패니즈 룩'이 대표적이며, 80년대 초반 서구 패션 비평가들에 의해 '거지 룩(beggarman look)' 또는 '포스트 히로시마 룩'으로 불려지면서, 장식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창작과 비구축적인 스타일로써 기성 패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 스타일은 동양과 서양, 클래식과 전위, 구조와 비

구조, 풍위와 소박, 하이테크와 휴먼 등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복잡하게 믹스되어 이분법을 해체하였고, 검정색 의복을 중심으로 휘감기, 두르기, 매기, 걸치기 등 다양한 레이어링 시킨 비구조적인 실루엣은 최소한 아름답고 화려해야 한다는 기존 서양 모드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하는 절제에 근거한 동양적인 철학이 기반이었다³¹⁾.

일본 디자이너들은 일본 미학의 세가지 중요한 요소 “불규칙, 불완전, 비대칭”의 선(禪) 미학의 영향을 공유하고 의복들은 이러해야 한다는 편견 속에서 의복의 ‘형식적인’ 개념을 거부함으로써³²⁾ dis, de의 탈현상을 제시한다.

허무주의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가와쿠보는 여성의 몸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를 나타내고 그렇게 디자인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자유·새로운 에너지·자부심·긍정적인 사고를 추구한다³³⁾. 1983년 가와쿠보의 파리 패션쇼에 대해서, 뉴욕 타임즈의 베르나던 모리스(Bernadine Morris)는 “인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며, 색상이나 질감으로 유혹하려 하지 않는다. 오버스케일(overscale)과 같이, 형태가 유동적이므로, 헬 라인의 위치나 허리 선의 표시는 중요치 않다. 가와쿠보의 패션에 대한 아주 순수한 시작과 참신한 접근의 의복들은 일본식으로 레이어드되었다.”고 했다.

수직성과 수평성은 중력장 안에 존재하는 우리의 위



[그림 7] Comme des Garçons의 작품, 92 S/S, (Collections, p. 80)

치와 상태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절대적 질서로 작용한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의 탈피는 중력의 작용 방향을 왜곡함으로써 표현되는데, [그림 7]는 가와쿠보의 92년 춘하 작품으로서 전통적인 중력 방향의 수직, 수평적 앞중심선, 옆솔기선, 다아트선 등을 탈피하고 비대칭적인 사선을 이루면서 긴장감과 함께 탈중심(decentring)적 표현을 제시한다.

“나는 제로에서 시작한다.”는 그녀의 무형(shapeless) 의복은 1995년 춘하 컬렉션에서 재킷 위의 재킷, 비기능적 소매의 앞중심으로의 이동으로 의복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형태를 벗어났다. [그림 8]은 20471120의 작품으로서, 앞뒤의 전도된 재킷에 좁은 칼라와 가슴포켓을 달고 옆선에 구멍을 내어 팔을 노출시킴으로써, 탈구성(decomposition)적 표현을 제시한다.



[그림 8] 20471120의 작품, 95 S/S, 도쿄, (Fashion News, p. 79)

탈구성의 원리는 더 나아가 일정한 규칙이나 룰이 없는 무질서(disorder) 한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작거나 꽉 맞는 것, 너무 크고 협령한 의복은 폐기를 상정한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인체에 대한 의복의 올바른 사이즈는 미학적 관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함으로써 사이즈 적합성에 대한 무질서를 제공한다.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은 의복의 사이즈와 맞음새에 대한 합리적인 관념과 맞지 않게 배열함으로써 시각적 불일치 즉, 무질서를 제공하

고 인체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관념을 제시한다. 94년 춘하 콜레조니(Collezioni)³⁴⁾에서는 “No rule, No time”이라는 제목 하에 패션의 다양한 키치 기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XXL와 XXS 사이즈의 수공에 니트가 주요 아이템으로 등장했음을 강조한다. [그림 9] 역시 일정한 질서없이 의복을 아무렇게나 구겨서 주름을 잡아 불규칙한 선을 이루고 불균일한 헬라인, 구겨진 원단으로 인해 우연성과 혼합, 중첩에 의한 무질서를 예시하며, 20471120의 [그림 10] 역시 분해된 소매



[그림 9] 패션 디자인 밸상 트레이닝 2, p. 48)



[그림 10] 20471120의 작품, 95 S/S, (Fashion News, Tokyo, p. 79)

가 발 토시처럼 다리에 걸려 있으며, 원피스 슬래쉬 사이로 블라우스 원단이 보이고, 안감은 불규칙한 헬라인에 노출되어 의복 구성법에 대한 무질서를 제시한다.

3.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

프레드릭 제임슨(Frederic Jameson)에서 장 보드리아르(Jean Baudrillard)까지 포스트 모던 이론가들은 확실성의 애매함을 우리시대의 근본 위기로서 보고 있으며, 모든 체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고 말한 데리다에 의해, 불확정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해체주의 복식은 일정한 척도와 기준이 존재치 않으며, 무한히 개방된 공간 구성에 의한 우연성을 지향한다³⁵⁾. 최근의 그런지(grunge) 스타일, 레이어드(layered) 스타일 등 코디네이션의 불확정성이 이러한 맥락에 따른 유행이며, 차장법에 관한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현대 패션의 경향에서 뚜렷하다.

텍스트 사이의 그리고 텍스트 내부의 각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간에 ‘차연’으로 존재하는 데리다의 텍스트 즉, 해체된 텍스트는 그 자체의 불확정성과 비확정성으로 인해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의 성격을 띤다. 해체주의에 있어 의미의 불확정성(Intermining of Meanings)이 제시하는 비지속성 기와 기표간의 간극, 의미 소멸, 감상자의 보편적 경험 소실의 강조는 인간의 형이상학과 인간이라는 주체에 의해 재현되지 않는 형태들에 의해 다의적으로 조작되어 읽혀지는 텍스트를 보여준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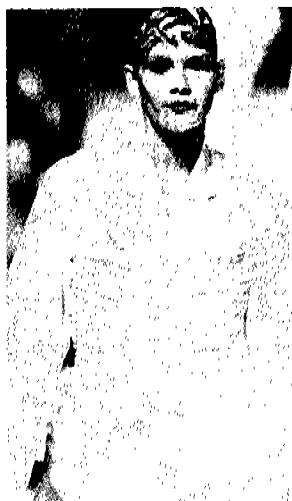
즉, 내부로부터 해체된 복식은 형이상학적 복식을 소멸시키고 허무적 반복을 넘어 이성과 광기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체와 복식 간의 전통적인 유기적인 관계 뿐만이 아니라 디오르와 같은 서구의 디자이너들이 추구한 기하학적 구서의 깔끔함이나 완성된 단위가 아닌 미완성의 덜 완벽한 것을 추구한³⁷⁾ 이러한 미완성과 불완전의 단계(deconstruction)는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새로운 완성의 단계(reconstruction)로 승화된다.

이러한 불확정적 의복의 근본에는 일본 전통 복식의 영향이 있다. 일본 전통 복식의 차장법은 복식의 착용으로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 오비, 직선재단, 레이어링 현상 등으로 인체 위에 착용된 후 그 진정한 형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착용자가 그 형태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나타낸다³⁸⁾.

소재의 선택과 인체에 입혀지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형을 창조하는 직선적인 재단법은, 2차원적 소재를 가지고 3차원의 인체에 착용됨으로써 완결된 미를 가지게 된다. 여기에 인체형을 무시한 직선적인 재단은 원단이 떨어짐에 따라 완성되는 잠재적 형태를 이루게 되고, 여기에 방한을 위해 한벌의 기모노에 여러 점을 입는 것에 기원한 레이어링 현상은 불확정성을 완성하게 된다. 1985년 추동 파리 콜렉션에서 발표한 미야케의 부드럽고 유동성이 있는 저지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와 재킷은 3차원적 인체구조를 초월한 직선적인 재단이 결국 인체에 의해 다시 유동적인 선으로 재창조³⁹⁾ 되고, 신체와 의복간의 공간을 강조하여 불확정적, 우연적 미를 이룬다.

의복형 자체를 부정하는 가와쿠보가 발표하고 있는 1983년 추동 파리 콜렉션에서의 환색 코트는 앞여밈과 헬라인이 비대칭적으로 되어 부정형(不定形)의 아무렇게나 결친듯한 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11]에는 앞중심에 사선방향의 불규칙적인 뮤기를 통해 앞여밈을 함으로써, 불규칙적인 사선 주름이 착용자의 인체에 따라 생기는 결정불가능성의 원리를 제시한다.

미야케는 신체 전체의 길이를 드레이핑하여 직물이 신체와의 조화 속에서 직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의복의 형태를 그린다. 일종의 패키지(package)인 동시에 완제품으로 고정된 서양 의복을 우연성, 열린 개념에 의한 미완성의 미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미야케의 작품



[그림 11] Comme des Garçons의 작품, 95 S/S, (Fashion News, Tokyo, p. 14)

은 ‘형태가 없는 형태, 형식이 없는 형식’이 기본적인 형태로서, 직사각형 한장의 천이 착용인에게 여러 다른 형태로 연출되며, 또한 인체 위에 착용된 후 그 진정한 형태를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즉, 착용자에 의해 완결되는 잠재적인 형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곧 이분법적 성구분을 해체하고 상호텍스트성을 제시하며, 착장자에 의한 착용방식 변형을 통한 불확정성, 무결정성을 추구함으로써, 차연의 유희로 나아간다. 1978년 말에 일본의 순수 사상 「현대 사상지」에서⁴⁰⁾, 아키토노 요시는 모호성(ambiguity)이 마야케의 디자인의 열쇠라고 서술했듯이, 미야케의 [그림 12]은, 마치 푸대자루에 소매를 단 듯한 구조로 네코 라인이 머리 위까지 이어진 착용 모습이나, 빅 칼라는 후드도 되고 솔도 되는 여러가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림 13]의 20471120은 이미 완결된 풍 원피스에 전통적으로 남성용 바지에 사용되는 안감을 접어서 노출시킴으로써 원피스와 바지 사이에 모호성이 제기되며, 접어 올린 길이에 따라 새로운 길이의 의복이 완결되는 착장법에 의한 미완성의 결정불가능성 원리를 나타낸다. 마사키 마쓰시마의 95년 춘하 작품 [그림 14]에서는 소매없는 가디건과 테일러드 재킷이 반쪽씩 채워지다가 재킷 몸판이 반대쪽으로 쏠려 기능성, 중심성 등을 모두 거부하고 착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결정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하는 동시에 파티용 원피스와 함께 착용되어 T.P.O. 개념도 무시하고 있다.



[그림 12] Issey Miyake의 작품, (East meets West, pp. 108-109)



[그림 13] 20471120의 작품, 95 S/S, (Fashion News, Tokyo, p. 79)



[그림 15] John Richmond/Maria Cornejo의 작품, 1986, (Streetstyle, p. 46)



[그림 14] Masaki Matsushima의 작품, 95 S/S, (Fashion News, Tokyo, p. 60)



[그림 16] 패션 디자인 발상 트레닝 3, p. 48

제시한다.

[그림 16]은 문양은 중국풍이지만 형태는 동서양 복식 개념에 적용되지 않는 아이템 자체가 불확정적인 무형태성을 지니며, 움직일 때마다 비결정적 실루엣을 형성한다.

즉, 의복에 의해 신분, 성 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인간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착장자의 의미가 결정되는 것이고, 착장법에 따라 자기 자신만의 의복을 창출해냄으로써 이뤄지는 위선에서의 탈출은 결정

전통적으로 스트리트 스타일을 창조하는 영국의 라ич 몬드와 코네조(Richmond & Cornejo)는 라벨에 Destroy(파괴), Disorder(무질서), Disorient(혼란)을 의미하는 '3D'를 사용하여 아이러니와 모호성 있는 디테일로, 착용자에게 적합한 의복을 만들었다⁴¹⁾. 특히 [그림 15]에서는 구조적 테일러드 칼라의 비구조적 망토와 절개된 앞판은 뒤집어져 내외 경계가 불분명하여, 인체가 움직임에 따라 실루엣이 변하는 결정불가능성을

불가능성을 완성하여, 참다운 자신으로 돌아가고 이것 은 해체의 차원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보노의 신체와 의복 사이의 공간 사이의 개념 을 취하여, 기대된 형태로부터 새로운 형을 만들도록 착용자와 의복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 의복의 제작과 착용에 나타나는 라인, 직물의 톤(tone), 비구 축적이고 협착하지 않는 태도는 일본적이지만, 정신은 서구적이며, 결국 인체의 새 이미지를 만들어 세계성의 상호텍스트성을 이루는 열려진 공간, 즉 결정불가능성을 제시한다.

IV. 결 론

철학 이론으로서의 해체주의의 특징을 복식에 접목시 칸 내부로부터의 해체는, 상호텍스트성, dis·de의 탈현상, 결정불가능성의 원리로 나뉘어진다.

첫째, 명행인용을 뜻하는 상호텍스트성은 뉴소사이 어티 사회의 경반대의 양면가치가 공존하는 듀얼리즘의 영향과 함께, 카테일 효과를 이루면서 성, T.P.O., 클래식과 로맨틱, 아이템, 소재, 문양, 착장 방식 등 그 모든 장르를 혼합하여 표현하는 골띠에와 베르사체의 복식을 그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서로 반대되는 성(gender)의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양 성성(androgyyny) 복식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와 같은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남자도 여자도 인간답게”라는 더 큰 문제, “제 3의 성”을 제시하였다. 시간, 공간, 목적을 상호인용하는 딱싱모드라고도 할 수 있는, T.P.O.의 상호텍스트성은 이분법적인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포멀과 스포츠, 하드와 소프트, 목적이 다른 아이템 등 대조되는 것을 접대성하여 불협화음을 발생시킴으로써, 무엇을 입어야 할지의 문제가 아닌 어떻게 입어야 할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둘째, 해체주의에서 중심에서의 탈피의 개념을 가진 ‘dis·de의 탈현상’은 복식에서 거주할 수 없는 공간, 입을 수 없는 의복도 순수한 의복의 형태임을 제시하는 탈구성(discomposition), 타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탈중심(decentring), 일정 규칙이나 룰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질서(disorder) 등의 부정성의 디자인 원리를 제시한다. 고정관념적인 미적 관념의 비율, 형태, 색상, 사이즈 등이 해체되어 미의 소외된 타자 즉, 추가 부각되었다.

셋째, 해체주의에서 기호의 재현성이 상실되면서 로고스 중심주의 이분법이 해체되고 차연의 유희로 즉 열린사고로 나아가면서 해체주의 복식 원리는 결정불가능성으로 통합된다. 특히 탈착, 겹쳐입기, 아이템 등에 있어 동일한 완성태를 보여주는 서구 의복과는 달리 일본 중심의 동양 복식은 착장자에 의해 완성되는 미완성 태인 동시에 인체 자체의 약동에 의해 허구와 위선에 의해 비틀려진 무엇인가를 떼어버린 참다운 표현을 창출하였다.

내부로부터 해체된 복식은 이성과 물이성, 의식과 무의식, 남녀, 동서양, 지위,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연령, 시공, 미추를 구별하는 이분법을 해체시켜 양자를 모두 인정하고 미적으로 열린 복식을 지향하였다.

참 고 문 헌

- 1)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89, p. 373
- 2) 이광래, 앞의 책, pp. 373-374
- 3) Madan Scarp, 페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부천 : 인간사랑, 1991, p. 22
- 4) 모든 사물과 현상이 거기로 향하는 변하지 않고의 심한 바 없는 의미를 추구해 온 서양 철학사의 전통을 로고스 중심주의라 한다.
- 5) 이광래, 앞의 책, p. 376
- 6) John Llewelyn, 페리다의 해체주의, 서우석·김세중 역,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88, p. 98
- 7) 김성곤(엮음), 탈구조주의의 이해(서울 : 민음사) 1988, pp. 46-48
- 8) J. Derrida: Marges de la philosophie, Minuit, 1972, p. 137.을 이광래, 앞의 책, p. 15에서 재인용
- 9) 이광래, 앞의 책, pp. 125-126
- 10) Jacque Derrida,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 김성곤(엮음), 앞의 책, p. 286
- 11) 정용교,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전축의 비교, 연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 82
- 12) 서강목,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 실천문화사, 1990/겨울), pp. 315-319
- 13) J. Derrida, marges de la philosophie, p. 28을 김형효, 앞의 책, p. 218에서 재인용
- 14) John Llewelyn, 앞의 책 p. 102
- 15) J. Derrida, Positions, p. 58을 김형효, 앞의 책, p. 236에서 재인용
- 16) 구혜영, Review, 겨울

- 17) "Royal Flush: Vivienne Westwood," i-D, (August, 1987), p. 57
- 18) 패션 투데이, 1995년 3월, pp. 33-35
- 19) 월간미술, 1994년 8월, p. 172
- 20) 채금석, 현대 복식에 나타난 프랑스 표현주의, 숙명여대 박사논문, 1994, pp. 75-76
- 21) 노정십, 아방가르드 패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p. 58
- 22) Carnegie, Vicky, Fashions of a decade: the 1980s, Facts on File, p. 20
- 23) Fred Davis,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 34
- 24)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N.Y.: Rizzoli), 1990, p. 66
- 25) 이정후, 현대 여성 복식에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0, p. 102
- 26) 정용교, 앞의 책, p. 82
- 27) 이지윤,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1994, p. 73
- 28) 양세은,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언어적 개념과 실내환경 디자인에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1992, p. 52
- 29) 안선경,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추의 개념", 한국의류학회지, 1995년 12월, pp. 173-189
- 30) 이은정, 일본의 1980년대 패션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 논문, 1991, p. 19
- 31)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대 석사 논문, 1986, pp. 82-83
- 32) Jennifer Craik, 앞의 책, pp. 36-37
- 33) ELLE 94년 2월, pp. 194-196
- 34) Collezione, N. 38, 1994 S/S, p. 84
- 35) 이지윤, 앞의 책, p. 82
- 36) 정용교, 앞의 책, p. 82
- 37) 박명희, "이세이 미야케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990, p. 13에서 개인용
- 38) Yamanka Norio (1982), "The Book of Kimono", p. 12
- 39) 윤명자, "현대 패션의 오리엔탈리즘", 이대 석사논문, 1991, p. 41
- 40) Shinichiro Kurimoto "A perspective beyond form", Issey Miyake, Body Work, 1983, pp. 83-93
- 41) Catherine McDermott, Street Style: British Style in the 80s, (N.Y.: Rizzoli), 1987, pp. 42-46